

성인진입기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가치 차이와의 관계

Received: October 15, 2022
Revised: January 15, 2023
Accepted: February 28, 2023

정은혜¹, 진경선²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¹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²

교신저자: 진경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kjin@sungshin.ac.kr

Relationships between moral evaluations of whistle-blowing and fairness-loyalty tradeoff in emerging adulthood

Eunhye Choung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202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내집단의 잘못을 외부로 알리는 내부고발은 종종 공정성과 내집단 충성의 서로 다른 도덕 원리가 상충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공정성 및 내집단 충성의 도덕 가치 차이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누군가의 잘못을 외부로 알린 이야기를 읽고 고발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였으며, 도덕적 기반 설문문을 통해 개인이 어떠한 도덕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이 상대적으로 내집단 충성 원리에 비하여 공정성 원리를 더 중시할수록 내부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타인의 내부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성차가 발견되었다. 더불어,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있어 위반행위자와 내부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 위반행위 심각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부고발에 대한 성인진입기의 도덕적 판단에 기여하는 개인적·상황적 변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내부고발, 도덕적 평가, 공정성, 내집단 충성,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자신의 집단 혹은 집단 내 구성원의 위반이나 잘못(transgression)을 외부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부고발은 내집단이 더 이상 잘못을 하지 못하게끔 행동을 취하거나, 이를 정의롭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발현되는 행위로, 내집단에 대한 배신(disloyalty)이 필연적이다(Jubb, 1999). 따라서 내부고발과 관련된 상황에서 개인은 내집단에 대해 충성해야 한다는 내집단 충성(ingroup loyalty)의 도덕적 원칙과 모든 사람에게 법과 사회 규범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정성(fairness)의 도덕 원칙이 충돌하는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내집단 충성과 공정성의 도덕 원리는 인간 도덕 인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지만(Graham et al., 2009; Haidt & Joseph, 2008), 내부고발과 관련한 복잡한 현실 상황에서는 이 기본적인 도덕 가치들이 상충하게 된다. 실제로 내부고발의 결과는 고발된 집단, 그리고 내부고발자 개인 모두에게 종종 가혹할 수 있다. 내부고발을 당한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은 외부로부터 처벌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는 집단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거나, 심지어 집단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Alford, 2001; Dyck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청년들이 공정성과 내집단 충성의 도덕 가치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말해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fairness-loyalty tradeoff)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간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와 성인진입기는 집단

과 유대(affiliate)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 간 조화를 찾으려는 발달적 시기이다(Arnett et al., 2001; Hitti et al., 2016; Mulvey et al., 2023; Smetana, 2011). 집단소속 혹은 집단정체성(group identity)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며 자율성을 획득해나가려는 청소년과 성인진입기에 중요한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Arnett, 2000). 이에 따라 이들은 집단의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며(Elis & Zbaratany, 2017), 집단으로부터의 배제를 두려워한다(Horn & Sinno, 2014). 그와 동시에 청소년과 성인진입기 청년들은 내집단의 규범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반기를 들기도 한다(Beißert et al., 2020; Hitti et al., 2017; Mulvey & Killen, 2015). 실제 성인진입기 청년들은 중기 성인에 비하여 공정성 또는 정의와 같은 개인적인 도덕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집단적인 도덕 원칙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Haidt et al., 1993; Jensen, 1995), 이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사회 운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현상과도 연관이 된 것으로 보인다(Killen & Dahl, 2021; Zaveri, 2020). 이처럼 발달 시기상 집단에 대한 소속욕구와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강한 성인진입기 청년들이 내부고발과 같이 집단적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치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는 성인의 내부고발 의지 혹은 행위와 관련된 상황적 변인을 주로 탐색하였다(e.g., Khan & Howe, 2020; Near & Miceli, 1995; Robertson et al., 2011; Zhang et al., 2013). 성인의 내부고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적 변인 중 하나는 내부고발로 인한 평판의 하락과 같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우려이다(Dozier & Miceli, 1985; Latan et al., 2019; Miceli & Near, 2002; Rothschild & Miethe, 1999). 예를 들어, 내부고발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목격한 개인은 내부고발을 하고자 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익명 창구를 사용하고자 한다(Gao & Brink, 2017; Kaplan et al., 2012). 또한 성인의 내부고발 의지 및 행위는 위반행위 및 위반자, 그리고 집단의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인은 위반행위가 조직의 전체적인 이익에 반할 때,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위반자의 기존 업무 수행 및 주변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내부고발을 더 많이 하고자 한다(Near & Miceli, 1995; Robertson et al., 2011; Robinson et al., 2012). 더불어, 성인의 내부고발 의지는 위반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인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가족일 때보다 낯선 사람일 때(Waytz et al., 2013), 그리고 내집단의 응집성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내부고발을 더 하고자 한다(Khan & Howe, 2021).

보다 최근의 연구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상황이 근본적으로 여러 도덕적 원리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복잡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변인을 살펴봐야 함을 지적하였다(Bocchiaro et al., 2012; Dungan et al., 2015, 2019; Waytz et al., 2013). 예를 들어,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내부고발을 하려는 의지는 내집단 충성의 원리보다 공정성의 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즉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Waytz et al., 2013). 나아가 실험적 조작을 통해 공정성 원리를 강조하

는 메시지를 점화할 경우, 내집단 충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메시지 점화에 비하여 참가자들의 내부고발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개인이 공정성과 내집단 충성의 도덕 원리 중 무엇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개인의 내부고발 의지와 연관이 있다고 제안하지만(Dungan et al., 2019; Waytz et al., 2013), 여전히 크게 세 부분에서 제한적이다. 첫째, 개인의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원리와 내부고발 의지 간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주로 성인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Dungan et al., 2019; Waytz et al., 2013), 실제 산업 장면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온 바 있다(King, 1999; Mesmer-Magnus & Viswesvaran, 2005; Near & Miceli, 2016; Park & Blenkinsopp, 2009). 이러한 성인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의지에는 실제 산업 조직에서의 경험과 관찰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발달적 관점에서 성인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거나, 혹은 직업적 세계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한 내부고발 연구는 많지 않다. 성인진입기는 집단에 대한 순응과 동시에 개인적 가치에 대한 열망이 강한 시기로, 아직 집단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간 조화를 찾아가는 시기이다(Arnett et al., 2001; Hitti et al., 2016; Smetana, 2011). 이러한 시기의 청년들이 내부고발과 같이 공정성과 내집단 충성의 도덕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그리고 이 도덕적 가치의 조율이 청년기의 도덕적 판단과도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개인의 내부고발 의지를 살펴보았을 뿐(Khan & Howe, 2020; Waytz et al., 2013), 공정성 대 내집단 충

성의 차이가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시나리오를 통해 측정된 내부고발 의지는 실제 내부고발 행위 간 괴리가 있으며, 개인은 시나리오상 자신의 내부고발보다 타인의 내부고발을 더 정확히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Bocchiaro et al., 2012).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가치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히 제한된 수의 연구만이 현재까지 개인의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도덕 원리의 차이와 내부고발 의지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Dungan et al., 2019; Waytz et al., 2013), 이 연구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간 도덕성의 근원에 대한 최근 입장에서 주목받는 도덕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은 인간이 문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5개의 기본적인 도덕 가치(위해 금지, 공정성, 내집단 충성, 권위에 대한 존중, 순수함)를 제안하며, 개인 또는 문화에 따라 어떠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인간의 도덕 인지의 개인차 또는 문화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Graham et al., 2011; Haidt & Graham, 2007). 예컨대,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은 공정성과 같은 개인적 도덕 원리보다 내집단 충성과 같은 집단적 도덕 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고(Graham et al., 2011), 이에 따라 내부고발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Brody et al., 1998, 1999; Chiu, 2003). 이에 한국과 같이 내집단 충성의 도덕 원리가 문화적으로 강력한 규범으로 여겨지는 문화권에서도 개인의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가치의 차이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혹

은 그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내부고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성과 내집단 충성이라는 두 가치 간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인 성인진입기 청년들에게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차이(fairness-loyalty tradeoff)에 따라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간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혹은 성인과 달리 도덕적 가치의 개인차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판단 간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가치의 차이와 개인의 내부고발 의지 간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Waytz et al., 2013)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변형하여,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가치의 차이가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성인진입기의 도덕적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발자와 위반자 간 관계, 그리고 위반행위의 심각도가 서로 다른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참가자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가 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청년을 대상으로 타인의 내부고발 평가에 대한 성차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적 기반 중 개인적 가치인 공정성과 위해 금지의 도덕적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성차는 67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Atari et al., 2020; Graham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가치인 공정성을 집단적 가치인 내집단 충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발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도 이와 일관된 성차가 나타날 것인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타인의 내부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성인진입기의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는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위반자와 내부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 및 위반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가?

연구 문제 3. 성별에 따라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가?

사용하여 총 5개의 도덕 기반(위해 금지, 공정성, 내집단 충성, 권위에 대한 존중, 순수함)에 대해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5개의 도덕 기반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혹은 5개의 도덕 기반에 관한 서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6점 척도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1: 전혀 관련이 없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매우 관련이 있다/매우 동의한다). 위해 금지, 공정성, 내집단 충성, 권위에 대한 존중, 순수함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60, .62, .62, .58, .62¹⁾이며, 각 도덕적 기반에 대한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위해 금지).
2. 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공정성).
3. 비록 가족 구성원이 나쁜 짓을 했을 때라도 사람들은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내집단 충성).
4. 권위에 대한 존경은 모든 어린이가 배워야 할 것이다(권위에 대한 존중).

1) 각 도덕적 기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위해 금지: $M = 4.31$, $SD = 0.74$ (남성: $M = 4.12$, $SD = 0.77$, 여성: $M = 4.49$, $SD = 0.67$), 공정성: $M = 4.39$, $SD = 0.67$ (남성: $M = 4.26$, $SD = 0.66$, 여성: $M = 4.52$, $SD = 0.66$), 내집단 충성: $M = 3.72$, $SD = 0.72$ (남성: $M = 3.78$, $SD = 0.82$, 여성: $M = 3.66$, $SD = 0.60$), 권위에 대한 존중: $M = 3.59$, $SD = 0.74$ (남성: $M = 3.76$, $SD = 0.80$, 여성: $M = 3.42$, $SD = 0.64$), 순수: $M = 3.55$, $SD = 0.81$ (남성: $M = 3.67$, $SD = 0.81$, 여성: $M = 3.44$, $SD = 0.80$)로 나타났다.

방 법

연구대상

만 19-24세 한국어가 모국어인 성인진입기 184명($M_{age} = 21.82$, $SD_{age} = 1.66$, 남성 89명, 여성 95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SSWUIRB-2021-024).

연구도구

도덕적 기반 설문지(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MFQ)

개인이 어떠한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측정하기 위해 Graham 등(2011)이 개발한 도덕적 기반 척도의 한국어 번역판(Kim et al., 2012)을

5. 순결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이다(순수함).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Dungan et al., 2019; Waytz et al., 2013)에 따라 5가지 도덕 기 반 중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가장 관련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공정성과 내집단 충성의 도덕 원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공정성 대 내 집단 충성의 차이는 기존 연구(Waytz et al., 2013)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공정성 점수에서 내집단 충성 점수를 뺀 값으로 설정하였다. 공 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 판단 시 내집단 충성보다 공정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청년들이 내부고발에 대해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 가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Waytz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문화적 배경에 보 다 적합하게 수정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 가를 측정하였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위반행위의 심각성은 일곱 개의 수준, 위반행위를 한 사람과 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는 네 개의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위반행위의 심각도]

1. 음식점의 불우이웃돕기 함에서 천원을 훔치는 행위
2. 동네를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부 수는 행위
3. 학교 기말고사에서 커닝하는 행위
4. 소속 단체(직장, 동아리 등)에서 100만 원을 횡 령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치는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팔기도 하고 본인도 마 약을 하는 행위
7. 편의점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칼로 찌르는 행위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

1. 처음 보는 사람
2. 몇 번 봤던 지인
3.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
4. 가까운 가족

위반행위의 심각도(7)와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 계의 가까운 정도(4)에 따른 총 28개의 시나리오에 서 참가자들은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10점 척도(1: 전혀 바 람직하지 않다, 10: 매우 바람직하다)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본 설문문의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9이며, 위반행위의 심각도 수 준별 최소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 수준별 최소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개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문항 간 도덕적 평가의 평균으로 계산되었으며, 숫 자가 높을수록 내부고발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예시는 다 음과 같다.

“A는 누군가가 편의점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 울 정도로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고, 그 사람을 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편의점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칼로 찌른 사람이 A의 가까운 가족이라면, 당신은 A의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연구절차

모든 참가자는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구 제목을 통해 상세한 연구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성인진입기의 도덕적 가치’라는 커버스토리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도덕적 기반 설문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순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연구 참가자가 연구의 목적을 파악하거나 연구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바람직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심각도와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의 순서는 조사기관의 설문 웹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무선후회되어 무작위적으로 제시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 가치 차이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

가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위반행위의 심각도 및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에 따른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 간 변인은 성별, 집단 내 변인은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와 위반행위의 심각도로 설정하였다.

결 과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fairness-loyalty tradeoff)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간 연관성

먼저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그리고 성별(남 = 0, 여 = 1)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분석 결과, 내집단 충성의 원리보다 공정성의 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의미하는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와 내부고발에 대한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계수(N = 184)

변인		1	2	3
1	성별	-	-	-
2	공정성 - 내집단 충성	.26***	-	-
3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28***	.21**	-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8(0.75)	6.96(2.95)
			남	6.10(3.17)
			여	7.75(2.49)
성차		<i>t</i>	3.68***	3.94***
		<i>d</i>	0.55	0.66

p* < .01. *p* < .001.

도덕적 평가 간 유의한 정적 상관($r = .21, p < .01$)이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 원리보다 공정성의 도덕 기반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이 내부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범주 변인인 성별과의 양류 상관(point-biserial correlation)분석 결과, 성별과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r = .26, p < .001$), 그리고 성별과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r = .28, p < .001$) 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정성의 도덕 기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부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있어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여성($M = 0.87, SD = 0.65$)은 남성($M = 0.47, SD = 0.80$)보다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높았다, $t(182) = 3.68, p < .001, d = 0.55$. 또한 여성($M = 7.75, SD = 2.49$)이 남성($M = 6.10, SD = 3.17$)보다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하여 더 도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t(182) = 3.94, p < .001, d = 0.66$.

앞서 확인한 성별과 주요 변인 간 유의한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한 후,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를 예측 변인으로,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 결과, 모든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공차(TOL)는 0.1 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변인 간 다중공산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28, p = .000$), 2단계에서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는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15, p = .042$).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 및 위반행위의 심각도와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간 연관성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있어 성별을 집단 간 변인으로, 위반자와 내부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와 위반행위의 심각도를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2(성별) x 4(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 x 7(위반행위의 심각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앞선 분석에서와 일관적으로 성별의 주효과($F(1, 182) = 15.48, p < .001, \eta^2 = .08$)가 나타났다. 또한 관계의 주효과($F(3, 546)$

표 2. 내부고발의 도덕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모형	예측변인	B	SE	β	$t(p)$	$F(p)$	R^2	adj. R^2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1	상수	6.11	.30		20.27***	15.48***	.08	.07
		성별	1.65	.42	.28	3.94***			
	2	상수	5.83	.33		17.77***	9.98***	.10	.09
		성별	1.42	.43	.24	3.29***			
		공정성-내집단	.59	.29	.15	2.05*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성별-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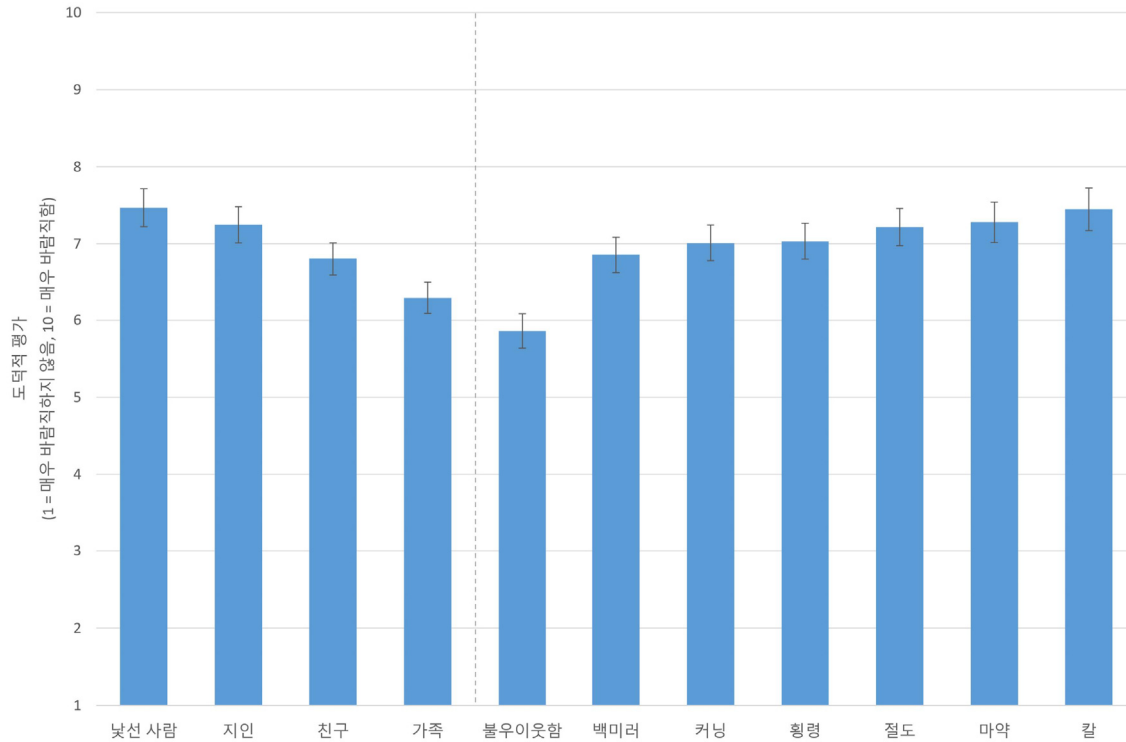


그림 1. 위반자와 고발자의 관계의 가까운 정도(왼쪽)와 위반행위의 심각도(오른쪽)에 따른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 64.70, $p = .000$, $n_p^2 = .26$), 그리고 심각도의 주효과($F(6, 1092) = 18.31$, $p < .001$, $n_p^2 = .09$)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1).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내부고발을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며,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 그리고 위반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 그리고 위반행위의 심각도에 대해 직전 수준 간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경우, 직전 수준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보는 사람 대 지인: $t(183) = 4.83$, $p < .001$, 지인 대 친구: $t(183) = 7.84$, $p < .001$, 친구 대 가족: $t(183) = 6.75$, $p < .001$. 이는 위반자와 고발자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내부고발이 덜 바람직하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위반행위 심각도의 직전 수준 간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음식점의 불우이웃돕기 함에서 천원을 훔치는 행위와 동네를 지나 가다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부수는 행위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으나, $t(183) = 5.55$, $p < .001$, 이외 직전 수준과의 비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_s > .05$.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 그리고 위반행위 심각도의 직전 수준 간 차이 중 유의한 결과는 다중비교의 문제를 고려하여 본페로니 교정을 통해 기존의 유의수준 0.05를 직전 효과 간 비교의 총횡수(9)로 나눌 때도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또한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와 위반행위의 심

각도 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18, 3276) = 8.13, p < .001, \eta_p^2 = .04$).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상호작용의 속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행위의 심각도 별 관계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심각도 수준에서 관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음식점의 불우이웃돕기 함에서 천원을 훔치는 행위: $F(3, 549) = 40.38, p < .001, \eta_p^2 = .18$, 동네를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부수는 행위: $F(3, 549) = 62.01, p < .001, \eta_p^2 = .25$, 학교 기말고사에서 커닝하는 행위: $F(3, 549) = 35.92, p < .001, \eta_p^2 = .16$, 소속 단체(직장, 동아리 등)에서 100만 원을 횡령하는 행위: $F(3, 549) = 63.16, p < .001, \eta_p^2 = .20$, 다른 사람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치는 행위: $F(3, 549) = 34.19, p < .001, \eta_p^2 = .16$,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팔기도 하고 본인도 마약을 하는 행위: $F(3, 549) = 27.67, p < .001, \eta_p^2 = .13$, 편의점 주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칼로 찌르는 행위: $F(3, 549) = 13.63, p < .001, \eta_p^2 = .07$. 아마도 각 심각도 별 관계의 주효과가 가지는 효과 크기의 차이로 인하여 두 변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리라 추정해볼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수준 변인 간 복잡한 상호작용이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외 위반행위의 심각도와 성별 간,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와 성별 간, 그리고 심각도와 관계, 성별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F_s < 1.3, p_s > .05$.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성인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도덕적 가치 및 성별, 내부고발 상황에서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가까운 정도, 위반행위의 심각도와 같은 개인적·상황적 변인과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래에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도덕적 가치 중 공정성을 내집단 충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의 차이(fairness-ingroup tradeoff)가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이 내부고발 상황과 관련하여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도덕 원리 중 내집단 충성의 원리보다 공정성의 원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길수록 타인의 내부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가 개인의 내부고발 의지 및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Dungan et al., 2019; Waytz et al., 2013)와 일관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이 공정성과 내집단의 도덕적 가치에 모두 민감하며 아직 이 두 가치 간 상대적 가중치를 조율해나가는 발달 과정을 지나고 있으나(Arnett et al., 2001; Hitti et al., 2016; Mulvey et al., 2023; Smetana, 2011), 성인과 유사하게 청년 개개인이 가진 도덕적 가치의 프로파일이 그들의 도덕적 평가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관계의 친밀도와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청년들은 내부고발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년들이 집단정체성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이후 성인기에 비하여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는 발달적 시기라는 선행연구(Arnett et al., 2001; Hitti et al., 2016; Mulvey

et al., 2023; Smetana, 2011)와 일관적인 결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들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은 청소년기, 성인진입기, 그리고 이후 성인기 등 보다 폭넓은 연령 범위를 대상으로 체계적 비교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의 가중치가 청소년기, 성인진입기, 성인 초·중기, 노년기를 지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내부고발과 같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추론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세대 간 차이점과 동시에 이를 관통할 수 있는 공통적인 도덕 인지 기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집단적인 도덕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도 개인주의 문화와 동일하게 개인의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가 내부고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 사회도덕적 판단에 있어 개인의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지지한다. 도덕 기반 이론(Graham et al., 2009; Haidt & Joseph, 2008)은 공정성, 위해 금지, 내집단 충성,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순수함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가치가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이 획득한 문화 보편적인 기본 도덕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 및 개인에 따라 어떠한 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가 인간의 사회도덕적 판단 및 태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차와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Graham과 동료들(2009)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이 서로 상반된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본다. 예컨대, 진보주의자들은 공정성, 위해 금지와 같이 개인의 복지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individualizing foundations)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내집단 충성, 권위, 그리고 순수함과 같이 집단의 결속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적인 도덕 원칙(binding foundations)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론은 단순히 정의(justice)로 규정되던 인간 도덕성의 전통적 관점에서 나아가,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도덕적 세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특히 많은 현대 사회에서 공통으로 참여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입장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e.g., Federico et al., 2013; Graham et al., 2011; Koleva et al., 2012; van der Linden & Panagopoulos, 2019).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는 도덕적 원칙 이외에도 한 사회의 맥락과 역사,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정치적 견해 간 관련성이 문화에 따라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여 도덕 기반 이론의 설명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2; Kivikangas et al., 2021).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적인 도덕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도 개인의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이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도덕적 판단 간 관련성이 여러 문화에서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내부고발을 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이

러한 성차가 나타난 이유는 도덕적 기반의 성차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는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컨대, 미국인 150,000명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위해 금지와 순수함의 도덕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Koleva et al., 2012), 최근 67개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공정성, 위해 금지, 순수함의 도덕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Atari et al., 2020). 또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진경선 외, 2017).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도덕 가치에서의 성차의 근원에 대해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에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Atari et al., 2020; Buss, 1989; Janicke et al., 2016; Schmitt, 2015). 예를 들어, 진화의 역사에서 후손 돌봄의 의무를 주로 맡아온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보살핌을 촉진하는 도덕 가치(예, 위해 금지) 혹은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폭넓은 지지적인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적 도덕 가치(예, 공정성)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진화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Taylor et al., 2000).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포함하여 최근 여러 문화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성차(진경선 외, 2017; Atari et al., 2020; Koleva et al., 2012)가 발달 과정에서 언제 그리고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발달적 근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서 성인진입기의 도덕적 기반을 확인하였다는 함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성별과 상관없이 성인진입기 청년들은 공정

성, 위해 금지와 같은 개인적 가치에서 다른 집단적 가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미국 성인진입기가 집단적인 도덕 원칙보다 공정성 또는 정의와 같은 개인적인 도덕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et al., 2012)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달 시기에 집단에 대한 소속욕구와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가지는 성인진입기 청년들이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도덕적 기반의 가중치의 차이가 문화 보편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성인진입기는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해 평가할 때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의 친밀도와 위반행위의 종류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자와 고발자 간 관계에 있어 처음 보는 사람보다 몇 번 본 지인일 때, 몇 번 본 지인보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 때, 그리고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보다 가까운 가족일 때 내부고발을 더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내부고발 의지를 살펴본 선행연구(Waytz et al., 2013)와 일관적으로, 집단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집단 충성의 도덕적 가치가 내부고발과 관련된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관계의 가까운 정도가 참가자 내 변인으로 조작되어 참가자들이 각 수준에 대해 명시적인 비교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참가자 간 변인으로 설정한 후 시나리오에 대한 조작 확인 질문을 추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현 및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위반행위 심각도의 경우, 변인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직전 수준 간 유의한 차이를 탐지하지 못하였다. 짧은 가상의 시나리오

를 사용한 연구 방법의 제한 상 참가자들이 여러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반 상황과 행위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기술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위반행위 심각도에 따른 내부고발의 도덕적 평가에 대한 차이를 더욱 정교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른 도덕적 가치(예, 순수함)와 관련된 다양한 위반행위를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두 가지의 도덕적 가치 이외에도 다른 도덕 가치 간 상호 조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내부고발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 예를 들어 보복이나 장래의 손해 가능성이 성인진입기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 이후 실직이나 파산,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Alford, 2001; Miethe, 1999). 이처럼 내부고발 이후 보복 혹은 장래의 손해 가능성은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복이나 장래의 손해 가능성(예,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위반자의 인지 가능성 유무)이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발 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아직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발달을 거치며 본격적인 직업 세계와 사회조직에 진출하기 이전의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도덕적 가치와 내부고발 간 관련성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추후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가 내부고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 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점화가 내부고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Waytz et al., 2013)에 따르면, 쓰기 과제를 통해 공정성의 가치가 점화된 참가자는 내집단 충성의 가치가 점화된 참가자보다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더 높은 내부고발 의지를 보였다. 이는 간단한 점화 자극으로도 개인의 내부고발 의지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성 대 내집단 충성의 차이가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공정성의 도덕 가치에 대한 점화는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읽기 과제나 쓰기 과제를 활용한 간단한 점화 자극이 타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사회에서 본격적인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 혹은 초기 단계의 교육 과정에서 내부고발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데에 이바지하리라 기대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단체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89-313.

- <https://doi.org/10.18205/kpa.2017.22.2.009>
Alford, C. F. (2001). *Whistleblowers: Broken lives and organizational powe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Arnett, J. J., Ramos, K. D., & Jensen, L. A. (2001). Ideological views in emerging adulthood: Balancing autonomy and communit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69-79.
<https://doi.org/10.1023/A:1026460917338>
- Atari, M., Lai, M. H., & Dehghani, M. (2020). Sex differences in moral judgements across 67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287(1937), 20201201.
<https://doi.org/10.1098/rspb.2020.1201>
- Beißert, H., Gönültaş, S., & Mulvey, K. L. (2020). Social inclusion of refugee and native peers among adolescents: It is the language that matte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0(1), 219-233.
<https://doi.org/10.1111/jora.12518>
- Bocchiaro, P., Zimbardo, P. G., & Van Lange, P. A. M. (2012). To defy or not to defy: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dynamics of disobedience and whistle-blowing. *Social Influence*, 7(1), 35-50.
<https://doi.org/10.1080/15534510.2011.648421>
- Brody, R. G., Coulter, J. M., & Lin, S. (1999).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whistle-blowing perceptions. *Teaching Business Ethics*, 3(4), 383-398.
<https://doi.org/10.1023/A:1009895700644>
- Brody, R. G., Coulter, J. M., & Mihalek, P. H. (1998). Whistle-blowing: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ethical perceptions of US and Japanese accounting students. *American Business Review*, 16(2), 14-21.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e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1), 1-49.
<https://doi.org/10.1017/S0140525X00023992>
- Chiu, R. K. (2003). Ethical judgment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locus of control. *Journal of Business Ethics*, 43, 65-74.
<https://doi.org/10.1023/A:1022911215204>
- Dozier, J. B., & Miceli, M. P. (1985). Potential predictors of whistle-blowing: A prosocial behavior perspectiv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823-836.
<https://doi.org/10.2307/258050>
- Dungan, J., Waytz, A., & Young, L. (2015). The psychology of whistleblowing.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6, 129-133.
<https://doi.org/10.1016/j.copsyc.2015.07.005>
- Dungan, J. A., Young, L., & Waytz, A. (2019). The power of moral concerns in predicting whistleblowing decisions.

-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5, Article 103848.
<https://doi.org/10.1016/j.jesp.2019.103848>
- Dyck, A., Morse, A., & Zingales, L. (2010). Who blows the whistle on corporate fraud?. *The Journal of Finance*, 65(6), 2213-2253.
<https://doi.org/10.1111/j.1540-6261.2010.01614.x>
- Ellis, W. E., & Zarbatany, L. (2017). Understanding processes of peer clique influence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4), 227-232.
<https://doi.org/10.1111/cdep.12248>
- Federico, C. M., Weber, C. R., Ergun, D., & Hunt, C. (2013). Mapping the connections between politics and morality: The multiple sociopolitical orientations involved in moral intuition. *Political Psychology*, 34(4), 589-610.
<https://doi.org/10.1111/pops.12006>
- Gao, L., & Brink, A. G. (2017). Whistleblowing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A review of experimental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whistleblowing.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38, 1-13.
<http://dx.doi.org/10.1016/j.acclit.2017.05.001>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https://doi.org/10.1037/a0015141>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66-385.
<https://doi.org/10.1037/a0021847>
- Haidt, J., &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1), 98-116.
<https://doi.org/10.1007/s11211-007-0034-z>
- Haidt, J., & Joseph, C. (2008). The moral mind: How five sets of innate intuitions guide the development of many culture-specific virtues, and perhaps even modules. In P. Carruthers, S. Laurence, & S. Stich (Eds.), *The innate mind Vol. 3. Foundations and the future* (pp. 367-391).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332834.003.0019>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https://doi.org/10.1037/0022-3514.65.4.613>
- Hitti, A., Mulvey, K. L., & Killen, M. (2016). Social exclusion in adolescence. In R. J. R. Levesque (Ed.),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1-14). Springer.

- https://doi.org/10.1007/978-3-319-32132-5_50-2
- Hitti, A., Mulvey, K. L., & Killen, M. (2017). Minority and majority children's evaluations of social exclusion in intergroup contexts. In N. J. Cabrera & B. Leyendecker (Eds.), *Handbook on positive development of minority children and youth* (pp. 281-293).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https://doi.org/10.1007/978-3-319-43645-6_17
- Horn, S. S., & Sinno, S. M. (2014).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317-339). Psychology Press.
[http://doi.org/10.1126/sciadv.1500983](https://doi.org/10.1126/sciadv.1500983)
- Janicke, T., Häderer, I. K., Lajeunesse, M. J., & Anthes, N. (2016). Darwinian sex roles confirmed across the animal kingdom. *Science Advances*, *2*(2), e1500983.
<https://doi.org/10.1007/BF02393196>
- Jensen, L. A. (1995). Habits of the heart revisited: Autonomy, community, and divinity in adults' moral language. *Qualitative Sociology*, *18*, 71-86.
<https://doi.org/10.1023/A:1005922701763>
- Jubb, P. B. (1999). Whistleblowing: A restrictiv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21*(1), 77-94.
<https://doi.org/10.1023/A:1006028417000>
- Kaplan, S. E., Pany, K., Samuels, J., & Zhang, J. (2012). An examination of anonymous and non-anonymous fraud reporting channels. *Advances in Accounting*, *28*(1), 88-95.
<https://doi.org/10.1016/j.adiac.2012.02.008>
- Khan, S. R., & Howe, L. C. (2021). Concern for the transgressor's consequences: An explanation for why wrongdoing remains unreporte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3*(2), 325-344.
<https://doi.org/10.1007/s10551-020-04568-4>
- Killen, M., & Dahl, A. (2021). Moral reasoning enables developmental and societal chang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6*(6), 1209-1225.
<https://doi.org/10.1177/1745691620964076>
- Kim, K. R., Kang, J.-S., & Yun, S. (2012). Moral intui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Reports*, *111*(1), 173-185.
<https://doi.org/10.2466/17.09.21.PR0.111.4.173-185>
- King, G. (1999). The implications of an organization's structure on whistleblow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20*, 315-326.
<https://doi.org/10.1023/A:1006028417000>
- Kivikangas, J. M., Fernández-Castilla, B., Järvelä, S., Ravaja, N., & Lönnqvist, J. -E. (2021). Moral founda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7*(1), 55-94.

- <https://doi.org/10.1037/bul0000308>
Koleva, S. P., Graham, J., Iyer, R., Ditto, P. H., & Haidt, J. (2012). Tracing the threads: How five moral concerns (especially Purity) help explain culture war attitud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2), 184-194.
<https://doi.org/10.1016/j.jrp.2012.01.006>
Latan, H., Chiappetta Jabbour, C. J., & Lopes de Sousa Jabbour, A. B. (2019). 'Whistleblowing triangle': Framework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0*(1), 189-204.
<https://doi.org/10.1007/s10551-018-3862-x>
Mesmer-Magnus, J. R., & Viswesvaran, C. (2005). Whistleblowing in organizations: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of whistleblowing intentions, actions, and retali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62*(3), 277-297.
<https://doi.org/10.1007/s10551-005-0849-1>
Miceli, M. P., & Near, J. P. (2002). What makes whistle-blowers effective? Three field studies. *Human Relations, 55*(4), 455-479.
<https://doi.org/10.1177/0018726702055004463>
Miethé, T. (1999). *Whistleblowing at work: Tough choices in exposing fraud, waste, and abuse on the job*. Boulder, CO: Westview Press.
Mulvey, K. L., Hitti, A., & Killen, M. (2023). When fairness and group loyalty conflict: Social exclusion, prejudice, and bia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L. J. Crockett, G. Carlo, & J. E. Schulenberg (Eds.), *APA handbook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velopment* (pp. 159-17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0000298-010>
Mulvey, K. L., & Killen, M. (2015). Challenging gender stereotypes: Resistance and exclusion. *Child Development, 86*(3), 681-694.
<https://doi.org/10.1111/cdev.12317>
Near, J. P., & Miceli, M. P. (1995). Effective whistle-blowing.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679-708.
<https://doi.org/10.2307/258791>
Near, J. P., & Miceli, M. P. (2016). After the wrongdoing: What managers should know about whistleblowing. *Business Horizons, 59*(1), 105-114.
<https://doi.org/10.1016/j.bushor.2015.09.007>
Park, H., & Blenkinsopp, J. (2009). Whistleblowing as planned behavior-A survey of South Korean police offic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5*(4), 545-556.
<https://doi.org/10.1007/s10551-008-9788-y>
Robertson, J. C., Stefaniak, C. M., & Curtis, M. B. (2011). Does wrongdoer reputation matter? Impact of auditor-wrongdoer performance and likeability reputations on fellow auditors' intention to take

- action and choice of reporting outlet.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23(2), 207-234.
<https://doi.org/10.2308/bria-50022>
- Robinson, S. N., Robertson, J. C., & Curtis, M. B. (2012). The effects of contextual and wrongdoing attributes on organizational employees' whistleblowing intentions following frau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6(2), 213-227.
<https://doi.org/10.1007/s10551-011-0990-y>
- Rothschild, J., & Miethe, T. D. (1999). Whistle-blower disclosures and management retaliation: The battle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organization corruption. *Work and Occupations*, 26(1), 107-128.
<https://doi.org/10.1177/0730888499026001006>
- Schmitt, D. P. (2015). The evolution of culturally-variable sex differences: Men and women are not always different, but when they are... It appears not to result from patriarchy or sex role socialization. In T. K. Shackelford & R. D. Hansen (Eds.), *The evolution of sexuality* (pp. 221-256).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https://doi.org/10.1007/978-3-319-09384-0_11
- Smetana, J. G. (2011). *Adolescents, families, and social development: How teens construct their worlds*. Wiley-Blackwell.
- Taylor, S. E., Klein, L. C., Lewis, B. P., Gruenewald, T. L., Gurung, R. A. R., & Updegraff, J. A. (2000). Biobehavioral responses to stress in females: Tend-and-befriend, not fight-or-flight. *Psychological Review*, 107(3), 411-429.
<https://doi.org/10.1037/0033-295X.107.3.411>
- van der Linden, S., & Panagopoulos, C. (2019). The O'Reilly factor: An ideological bias in judgments about sexual harass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9, 198-201.
<https://doi.org/10.1016/j.paid.2018.11.022>
- Waytz, A., Dungan, J., & Young, L. (2013). The whistleblower's dilemma and the fairness - loyalty tradeoff.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6), 1027-1033.
<https://doi.org/10.1016/j.jesp.2013.07.002>
- Zhang, J., Pany, K., & Reckers, P. M. (2013). Under which conditions are whistleblowing best practices bes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3(3), 171-181.
<https://doi.org/10.2308/ajpt-50451>
- Zaveri, M. (2020, June 23). "I need people to hear my voice": Teens protest racism.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6/23/us/teensprotest-black-lives-matter.html>

Relationships between moral evaluations of whistle-blowing and fairness-loyalty tradeoff in emerging adulthood

Eunhye Choung¹

Kyong-sun Jin²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When a group engages in moral transgressions, its members face the whistleblower's dilemma: the conflict between remaining loyal to the group or standing up for justice and fairnes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oral evaluations of whistle-blowing behaviors and the fairness-loyalty tradeoff in emerging adults. The participants read scenarios in which a person blows the whistle on another person's moral transgression and evaluated the whistle-blowing behaviors. The scenarios differ in the levels of relationship closeness between the violator and whistle-blower, and the severity levels of the viol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a fairness-loyalty tradeoff predicts individuals' evaluations of whistle-blowing. Moreover, women evaluated whistle-blowing behaviors more positively than men. There were also significant effects of relationship closeness between the violator and whistle-blower on the severity of violations. These results reveal the psychological and contextual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s' moral evaluations of whistle-blowing behavior.

Keywords : *whistle-blowing, moral evaluation, fairness, ingroup loyalty, fairness-loyalty tradeoff*